

미국 음속12배 항공기 개발 추진

美공군은 앞으로 10년후 미국의 무기 체계를 전망하면서 미래의 신 무기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모두 15권 분량의 이 보고서는 △음속의 12배로 날 수 있는 초음속 항공기 △적의 교신을 무력화시키는 마이크로파 무기 △레이저 무기 △전세계 어느 곳에 있는 목표물도 1cm 이내의 오차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 등이 개발 보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美공군 과학기술자문위 의장인 진 맥클 박사는 미국 공군의 미래 무기들이 위성과 항공기, 지상의 감지장치에 크게 의존하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 등에서 포착된 정보로 적의 무기 체계를 거의 오차없이 겨냥하는 일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美공군이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신에 개발중인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제는 목표물에서 3백2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해도 1분안에 목표물을 정확히 요격할 수 있다.

맥클 박사는 고에너지 집중시켜 목표물을 파괴하는 에너지 집적 무기도 약 10년 후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자판이나 마우스를 통해 명령할 필요없이 컴퓨터가 인간의 뇌파와 직접 교신해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러, 중국에 SU-27 판매재개

러시아는 7일 중국에 대한 고성능 전투기 SU-27기의 판매를 재개하며 중국은 앞으로 이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U-27기 거래에 관한 러시아측 협상대표인 알렉산드르 쇼킨 의원은 이날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러시아 항공기산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이번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같이 밝혔다.

쇼킨 의원은 러시아가 양국간에 체결된 동일한 협정에 따른 별도의 계약에 의거, 중국에 SU-27기 생산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쇼킨 의원은 중국이 SU-27기를 자체 생산하기 이전에 러시아가 몇 대의 전투기를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앞서 뉴욕 타임즈지는 72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러시아와 중국간의 이같은 거래는 최근 중국과 대만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만은 금년말 미국의 F-16전투기 1백50대와 프랑스의 미라주(Mirage) 전투기 60대를 인도받을 예정이다.

미 F-14전투기 추락, 5명 사망

미해군 F-14 전투기 한대가 1월 29일 아침 테네시주 내슈빌 국제공항 상공에서 훈련비행도중 인근 마을로 추락, 최소한 5명이 사망했으며 가옥 3채가 소실됐다고 관리들이 밝혔다.

필 브레데센 내슈빌 시장은 이번 추락사고로 전투기 조종사 2명과 최소한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종사 2명의 사체를 확인했으며 불에탄 한 가옥에서 민간인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인만 테네시주 비상관리국 부국장은 전투기가 이날 오전 9시30분(현지시간) 내슈빌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 가옥 3채를 덮쳐화재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가을까지 4기 인도 일, FS-X 시험용기

지난 해 10월에 첫비행을 시작하여 순조롭게 비행시험중인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FS-X는 금년 가을까지 시험용 4기가 모두 납품될 것이라고 제작사인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전하고 있다.

금년 3월에는 강도 시험용이 출고되고 이어 회로시험용이 10월말에 납입되며 복좌형은 10월까지 납품되면 시험용 4기가 완납되며 98년말까지 실용시험을 끝내고 99년

에는 운용시험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그후 2천년까지 FS-X로 된 첫 비행대가 미자와 기지 제3항공단에 비치될 예정이다.

일본 공군자위대는 96-97년에 20기를 발주하여 99년에 인수하여 부대에 배치하여 실용화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따라 96년도 예산에 12기를 구입할 예산이 계상되고 97년도에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하기로 예산당국과 절충중이라고 한다.

스텔스 특성연구

일 방위청, 방위계획에서

일본 방위청의 기술연구본부는 최근 항공관련 방위기술 연구발표회에서

①항공기 형상에 의한 RCS특성 연구

②광조종 시스템의 요소 모델 해석

③연소기의 시험용 장치

④연소기 시험의 성능확인장치 등의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그중 스텔스특성에 관한 연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근년에 와서 항공기 설계의 기술적 특성에서 레이더에 대한 파발견성의 문제는 이제야 필수적으로 되었다. 그중에서 전파흡수재를 개량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항공기의 형상 구조에 의한 전파 반사 절감의 효과는 매우 크다. 미국 등지에서는 매우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

는데 지금까지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된다.

즉, 평면에 의한 전파의 반사, 굴곡이나 굴절에 의한 산란, 표면전류의 불연속에 의한 반사등을 들수 있다. 그중 기체표면의 불연속을 통일 시킴으로서 전파의 반사를 한 방향으로 집중 시킬 수가 있다. 또, 반사 요인의 2차반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특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축소모형에 의한 계측은 매우 곤란하다. 각국의 이런 연구 실적은 잘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보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자체 실험정보와 자료를 축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 정보 S/W개발

소형 항공기용에

미국의 파이오니가와 비컴사는 헬리콥터와 소형항공기용으로 지도 정보 전용의 소프트 웨어를 개발했다고 한다.

파이오니아사는 이미 1990년부터 항공기용 지도 검색장치를 공급해 왔는데 이번에 항공기용 GPS지도 정보시스템을 새로 개발하여 내년 봄부터 시장에 내어 놓을 것이라고 한다.

공중지도장치는 GPS 수신장치와 이에 접속되어 있는 CD-ROM병식의 지도 정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GPS수신기로 위치 측정자료를 전자지도상에 표시하여 자기위치를 알게하고 동시에 공항, 헬리포트 및

공역 관제 구역도 지도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장치이다. 또 지도 호출기능이 있어 원하는 지역의 상세도를 기상에서 호출할 수도 있어 재해구난, 수색등에 쓰이게 되어 있다.

經國호 생산 잠시중단

대만, 납품기 모두 리콜

대만이 자체 개발하여 일선에 배치한 전투기 經國호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고 AID가 밝혔다.

이 조치는 배치한 동 국산 전투기중 1기가 주날개 밑에 달아맨 보조연료탱크의 연료가 주 날개 안에 있는 본 탱크로 잘 이송 되지 않아 적어도 6개월가량 생산을 중단하고 이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것으로 이미 공군에 비치한 전투기 40기도 모두 리콜하여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만 정부는 이 연료탱크의 송유장치 점검과 개량이 끝나면 전투기 생산을 계속할 것인데 다만 당초 250기 생산계획을 130기로 감축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 대만은 이밖에 미국의 F-16과 프랑스의 미라주 2000-5를 도입키로 한바 있다.

헬기 수출 승인 기각

미 국방총성, 쿠웨이트에

UH-60L 블랙호크 헬리콥터 무장형을 쿠웨이트에 수출하려는 시콜스키사의 수출승인 신청을 미국방총성이 기각했다고 한다.

무장형 이 헬리콥터에는 레이저 조준 대 전차 미사일을 장비하게 되는데 여기에 장착할 휴즈사의 전방적외선감시 레이저조준 대전차미사일의 수출이 먼저 기각된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방총성은 걸프만 연안 여러 나라에 레이저 조준식의 미사일을 수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쿠웨이트는 MD사의 AH-64 아파치 헬리콥터를 1994년말부터 18-24대 수출하는 상담이 계약직전까지 이른 뒤 돌연 블랙호크형으로 변경된 적이 있는데 이번 승인 기각에 따라 다시 아파치형이 거론될 것으로 보고있다.

3세대 스텔스기 개발 영국, 2천년까지 완성키로

영국 국방성은 제3세대 스텔스 공격기의 개발계획을 발족했다고 한다. HALO(High, Low, Observable =고민첩·저시인)이라는 이름의 이 계획을 2천년까지 풀 스케일 비행 데몬스트레이터를 완성시킬 예정이다라고 한다.

영국 공군이 생각하는 HALO기는 스탠드 오프 무기를 기내에 탑재하는 쌍발기로 추력변향장치를 갖추고 있어 레이더에 포착되기 힘들고 항속성능, 이륙성능이 아울러 우수하며 공기 저항이 아주 적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공군은 2013년 토네이도 공격기와 대체되는 장래형공격용 항

공기(FOA)에 이 HALO기술에 의한 스텔스장치를 응용할 계획인데 잘하면 유로파이터와 미국의 JAST에도 이 3세대 스텔스 기술이 응용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풍동시험 순조로워 미, F-22신형 전투기

록히드 마틴사의 F-22 최신에 차기 전투기는 97년 5월에 가야 첫 비행이 가능하지만 현재 미국의 14개 시설, 독일의 1개시설에서 풍동시험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전한다.

- F-22의 풍동시험에서는
- ①공력하중과 웨본 베이의 음향
 - ②공기흡입구의 상태
 - ③밋선, 매뉴버의 성능
 - ④웨본과 탑재무기의 단절
 - ⑤안정성과 제어비행특성

등의 여러가지를 시험하고 있는데 이미 8,000시간 이상이 시험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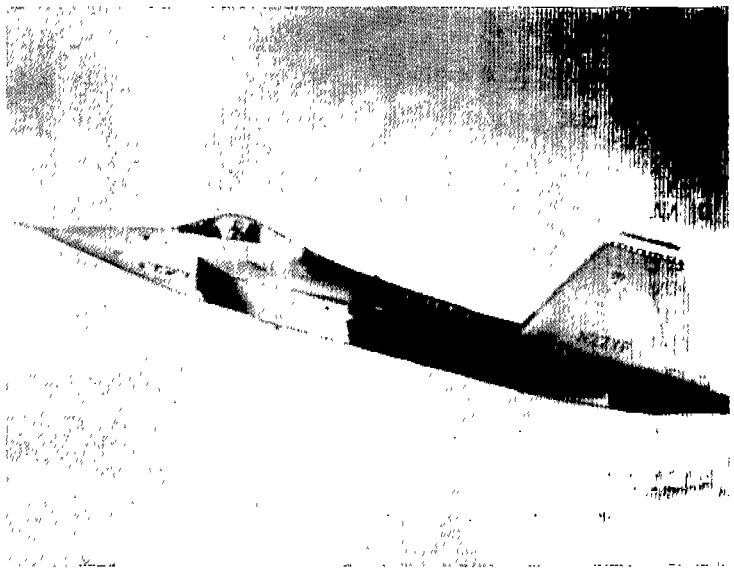
었는데 앞으로 900시간을 더 시험하고 끝마칠 예정이다.

한편, 미공군 항공전투군단의 조종사 7인으로 구성되는 조종실 평가 팀은 F-22의 조종실 설계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판정했다.

미라쥬기 구입키로 파키스탄 정부 밝혀

파키스탄 정부는 프랑스의 최신에 전투기 미라쥬 2000-5형 40기를 구입키로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원래 미국으로부터 F-16전투기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핵의혹 때문에 전투기 수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신 프랑스 전투기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F-22전투기의 모형도